

1673년 효종 영릉(寧陵) 천릉의 백자 지식 제작 의의*

-조선시대 국장(國葬)용 백자 지식 전통의 형성-

송 인 희**

목 차

- I. 머리말
- II. 1673년 백자 지식의 제작 결정과 소관 논의
- III.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에 기록된 지식 체제와 제작 개요
- IV. 1673년의 제작에 대한 조선후기 국장에서 의 참고
- V. 맺음말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국장(國葬)에서 백자 지식이 제작된 상황을 밝힌 최초의 기록으로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에 주목하여, 1673년 천릉(遷陵)에서의 백자 지식에 대한 결정과 실행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그 의의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에 소관 배경과 서서관 선정, 제작 개요와 소입 물품의 기록을 관련 사료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백자 지식의 제작 체계가 전반적인 국장 과정 안에서 정착되는

*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조선 17~18세기 가례(嘉禮)와 흉례(凶禮) 의궤에 나타난 왕실용 백자(白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2026)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고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 宋仁熙 클리블랜드미술관, 리서치펠로우 isong@clevelandart.org

투고일: 2026. 4. 30. 심사완료일: 2025. 6. 15. 게재확정일: 2026. 7. 15.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6.50..41>

양상을 탐색했고, 그중 지식의 규격과 형식 및 백토와 청화 안료에 관해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기록들을 확인해 조선시대 백자 지식의 발달 및 관요의 제작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새로운 자료를 제공했다. 나아가, 기록과의 비교로 한국학 중앙연구원 소장 청화백자 지식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이후 국장 및 예장에서의 지식 제작 기록을 살펴 1673년의 제작이 후대 의례에 미친 영향 또한 밝혔다. 1673년의 백자 지식은 18세기 중반 재발견되며 국휼(國恤)에서의 백자 지식 제작이 규례로 정립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18세기 후반~19세기에 걸쳐서는 국장 및 예장에 백자 지식이 정착되면서 석제 지식과 취사선택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석재만 고수되던 조선전기와 비교하면 지식 재질에 관해 유연해진 태도를 드러내므로, 1673년 천릉의 백자 지식 제작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이끈 실험적 시도로 조선시대 국장용 지식의 새로운 전통을 형성한 기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핵심어 | 의궤(儀軌), 의례(儀禮), 흉례(凶禮), 국상(國喪), 관요(官窯), 분원(分院), 청화백자(靑畫白磁), 묘지(墓誌), 왕실(王室), 부장(副葬)

I. 머리말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국장(國葬)에서 백자 지식이 최초로 채택된 전말을 기술한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를 중심으로, 1673년 천릉에서의 백자 지식에 관한 주요 내용을 간추려 그 제작 의의를 밝히려는 것이다.¹⁾ 1673년 천릉 당시 지식 제작을 둘러싼 결정과 진행의 기록은 그 자체로 조선 왕실

1) 본고에서 검토한 문헌들은 다양한 전자 자료에서 얻은 원문과 텍스트에 바탕을 두었다. 의궤 기록은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원문검색서비스”와 “한국학자료센터 의궤”에서, 실록과 승정원일기 및 전례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사료D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했다. 각 자료의 기본 연결 정보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의궤, <http://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2026.4.29. 접속);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 (2026.4.29. 접속);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사료DB, <https://db.history.go.kr/joseon/> (2026.4.29. 접속)

의례에서 백자 재질의 선택 확대를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논의와 실현이 동시기 관요의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도자사 연구에 기여할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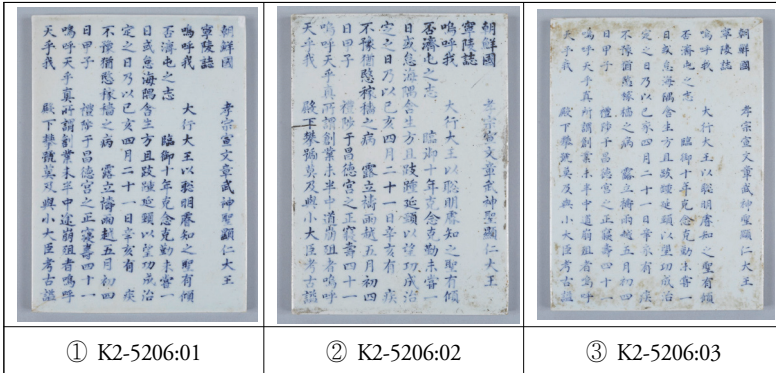
나아가, 해당 의례의 면밀한 검토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하 장서각)에 효종 영릉의 지문(誌文)을 담은 3점의 청화백자 지석이 소장된 것과 관련해, 유물의 성격과 의미를 부각함으로써 17세기 후반 관요 백자의 새로운 편년자료로 재발견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삽도 1). 장서각 소장 유물은 3점 모두 ‘조선국 효종선문장무신성현인대왕 영릉지(朝鮮國 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 寧陵誌)’로 시작하는 지문의 첫 장을 동일한 형식이나 서로 다른 필체로 작성해 실제 사용보다는 상호 비교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²⁾ 이는 석제 지석이 주요했던 조선시대에 국왕을 위해 제작된 백자 지석을 보이는 희귀한 사례이다.³⁾

2) 해당 유물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장서각을 통해 “조선국효종선문장무신성현인대왕영릉지문(朝鮮國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寧陵誌文)”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2019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특별전 도록 『조선왕실의 비석과 지식 탐본』에도 수록되었다. 다만, 두 자료에는 제공된 정보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디지털장서각의 상세정보에는 이들 3점의 청화백자지석을 처음 만든 원대 지식 1점과 1673년 천릉 과정에 추가로 만든 2점으로 소개했다. 이러한 추론은 함께 언급된 『승정원일기』 1673년 7월 5일자 기사에 주로 기반한 것으로,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반면, 『조선왕실의 비석과 지식 탐본』 도록에서는 본고와 마찬가지로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에 기초해 해당 3점이 영릉 천릉 과정에서 청화백자 지문을 시험 번조한 것으로 보았고, 서서관 3명에게 첫 장을 쓰게 하고 어란한 이후 왕실에서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각 상세 내용은 박경수, 「조선국효종선문장무신성현인대왕영릉지문 상세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dir/view?dataId=JSG_K2-5206 (2026.4.29. 접속);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왕실의 비석과 지식 탐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24-27쪽 참고.

3) 본고에서는 의례와 전례서, 실록 등의 기록에서 ‘沙誌石’, ‘磁誌’ 등이 혼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시된 재질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자 백자 지식으로 통일해 서술했다. 다만, 원자료의 맥락에 따라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원문의 표현을 유지한 경우도

삽도1. 효종 영릉 청화백자 지석 현황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조선국효종선문장무신성현인대왕영릉지문>)



이제까지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로 조선시대 자기제 지석은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제작이 이루어졌고, 백자 지석의 유물 또한 현재 사대부 지석이 주류를 차지하여 그 형식 분류와 특징의 분석이 자기제 지석의 역사성 및 전반적인 수용 양상 안에서 파악되었다.⁴⁾ 또한 1445년 제작된 평원대군(平原大君) 이림(李琳, 1427~1445)의 지석과 1526년 제작된 제안대군(齊安大君) 이현(李瑄, 1466~1525)의 지석이 소개되면서,⁵⁾ 17세기 이전 왕실 일원을

있다는 점을 밝혀준다.

- 4) 조선시대 자기제 지석에 관한 주요 연구는 김세진,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 研究』,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김세진,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의 變化와 特徵』, 『미술사학연구』 271-272, 한국미술사학회, 2011, 77-112쪽; 오임숙, 「조선시대 誌石 연구」,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오임숙, 「조선시대 磁器製 器物形 誌石 연구」, 『석당논총』 63,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5, 189-227쪽; 장남원, 「〈백자청화 이기하 지석〉의 도자사적 의의」, 『이기하 묘지(李基夏 墓誌) 28년만의 귀향』,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22, 74-94쪽 등 참고.
- 5)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묘지명Ⅱ』, 2012, 207-209쪽, 263-266쪽.

위한 백자 지식의 제작이 국왕의 적자에게까지 이루어진 상황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을 위한 상장(喪葬) 의례에서의 백자 지식은 이제까지의 실물로는 1762년 제작된 사도세자의 청화백자 지식 외에 알려진 바 없다.⁶⁾ 기록 역시 1673년 7월 5일자 『승정원일기』의 기사에서 현종이 신료들과 백자 지식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 관련 상황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승정원일기』의 해당 기사는 현종대 선왕인 효종의 영릉(寧陵)이 1659년 조성 이래로 석물의 파손과 수리가 반복된 끝에,⁷⁾ 1673년 3월 24일 영릉의 부실 축조에 대한 의식이 제기되면서 1673년 4월 12일 영릉의 관리 기록에 대한 조사가 지시되고 1673년 4월 19일 천릉(遷陵)의 가능성이 검토된 이후,⁸⁾ 1673년 5월 5일에 이르러 천릉이 결정됨에 따라,⁹⁾ 그 준비 과정에서

6)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2, 10-15쪽.

7) 실록에서 확인되는 영릉의 파손 및 보수 관련 주요 기록은 다음의 기사 참고: 『顯宗實錄』 顯宗1年(1660) 7월 18日; 『顯宗改修實錄』 顯宗1年(1660) 7월 20日; 『顯宗改修實錄』 顯宗1年(1660) 10월 13日; 『顯宗實錄』 顯宗1年(1660) 12월 9日; 『顯宗實錄』 顯宗2年(1661) 2월 9日; 『顯宗實錄』 顯宗2年(1661) 4월 18日; 『顯宗實錄』 顯宗2年(1661) 12월 8日; 『顯宗改修實錄』 顯宗2年(1661) 12월 8日; 『顯宗實錄』 顯宗8年(1667) 3월 18日; 『顯宗實錄』 顯宗12年(1671) 8월 24日 등.

8) 영릉의 천릉 결정에 이르기까지 실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논의의 상세 내용은 다음의 기사 참고: 『顯宗實錄』 顯宗14年(1673) 3월 24日; 『顯宗改修實錄』 顯宗14年(1673) 3월 24日; 『顯宗改修實錄』 顯宗14年(1673) 4월 12日; 『顯宗實錄』 顯宗14年(1673) 4월 19日.

9) 『顯宗改修實錄』 顯宗14年(1673) 5월 5日, “上引見右議政金壽興 禮曹判書趙珩 參判李殷相 參議李崧 下詢山陵改奉與遷奉便否 皆對曰 補土傾陷 致有今日之變 今雖改築 亦安保異日之無事乎 事已至此 卜吉地遷陵之外 更無他策矣 上下教曰 寧陵陵上石物之漸生罅隙 雖由於當初不善安排 而蓋緣補土之不能堅固 以致年年生隙之患 改封陵之舉 不容少緩 而但補土既不堅固 則日後之患 難保其必無 其在萬世永安之道 終不可姑息而止 遷陵之舉 固知莫重莫大 而誠出於事勢之萬不獲已也 禮官率地官及士夫間精於地術者 先往近地諸山看審 觀象監提調亦同往”: 해당 내용은 세부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에도 동일한 날짜의 전교로 수록되어 있다.

백자 지식을 검토한 논의의 일부이다. 이러한 기록 외에, 1673년 거행된 효종 영릉 천릉에 대해서는 1674년 편찬된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를 통해 진행 사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현전하는 흉례(凶禮) 의례로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에 대한 상례(喪禮) 및 능원(陵園)에의 매장 절차를 기술한 의궤들 가운데 백자 지식의 채용을 밝힌 최초의 기록이다.¹⁰⁾ 그러나 자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는 의례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부족했고, 이로써 전술한 『승정원일기』의 기사 및 장서각 소장 청화백자 지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를 중심으로 1673년 천릉에서 백자 지식의 제작이 시도된 경위와 진행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왕릉의 매안용으로 처음 채택된 백자 지식이 구체적 인 실행의 기반 위에서 의례 영역에 자리매김한 면모를 밝히고, 이차적으로는 당시의 신중한 제작 태도를 실증하는 유물로 장서각 소장 청화백자 지식의 가치를 재조명할 것이다. 나아가, 1673년의 사례로 국장에서 비로소 정립된 백자 지식의 실행 규준이 조선후기에 걸쳐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 장례(葬禮)의 새로운 전통을 형성하게 된 궤적을 탐색함으로써 조선시대 도자사와 의례 문화 속에서 그 제작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Ⅱ. 1673년 백자 지식의 제작 결정과 소관 논의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는 현종14년(1673) 3월부터 10월에 걸쳐 1659년 축조된 효종의 능을 현재는 경기도 구리시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양주 소재였

10) 현전하는 국장 및 예장 관련 의궤에서 확인되는 백자 지식의 제작 현황은 송인희, 「조선 17~18세기 가례(嘉禮)와 흉례(凶禮) 의궤에 나타난 왕실용 백자(白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6, 84-89쪽 참고.

던 건원릉(健元陵) 부근으로부터 여주의 영릉(英陵) 인근으로 옮긴 과정을 기록했다.¹¹⁾ 지식에 관한 논의는 1659년 국장 당시 작성된 내용에 더하여 천릉에 관한 기술을 추가해야한다는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먼저 1659년 기해년 송시열이 작성한 지문의 끝에 천릉에 대한 사정을 첨가하거나, 혹은 별도로 추가 작성해 다른 돌에 새기고 원래 지식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가, 별개의 돌에 새기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고 지적되면서 예조 관원을 송시열에게 급히 보내 문의하도록 했다.¹²⁾ 그 결과 지문을 고쳐 쓰고 새로운 지식을 제작하기로 하면서 이를 새길 석재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이전에는 충주에서 가져다 썼으나 충주의 석질이 점차 떨어져 국용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되면서 강화도의 돌을 정밀히 선정해 운반하도록 했다.¹³⁾

주목되는 부분은 이처럼 석제 지식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얼마 후 백자 지식의 별도 제작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의례 내 1673년 6월 20일자로 기록된 관련 논의는 번조한 지식이 가장 영구하다는 이유로 따로 지식을 번조해 매안하자는 제안이 승인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¹⁴⁾ 실록에서도 같은 날짜로 정리된 기사가 보인다.¹⁵⁾

11)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都廳儀軌, “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寧陵 舊在楊州健元陵內(……)陵在驪州弘濟洞東 距英陵八百九十七步”

12)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都廳儀軌, “(……)至於誌石(……)己亥年誌文即 今行判中樞府事宋時烈所撰也 或以爲就元文添入 遷陵曲折於末端爲宜 或以爲別爲追記 刻於他石與前所刻並用云 而別刻他石似涉不便 依榻前下教 急速發遣禮曹郎官 問議於行判中樞府事宋時烈 後稟處何如 傳曰 允”

13)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都廳儀軌, “都監郎廳 以摠護使意啓曰 誌文 今若改撰 則所刻之石 當爲依舊例 取來於忠州 而近來忠州石品漸劣 不合於國用 依榻前定奪 以江華石極擇伐出運來之意 敢啓 傳曰 知道”

14)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都廳儀軌, “癸丑六月二十日(……)戶曹判書閔維重所啓 誌石燔造最爲千萬歲永久之圖 雖爲刻石用之以備儀文 而別爲燔造埋安恐爲宜當矣 上曰 別爲燔造可也”

15) 『顯宗改修實錄』顯宗14年(1673) 6月 20日, “(……)上又曰 誌石改造事 問於宋判府事則

제작 결정에 이어서는 소관에 대한 논의가 따랐다. 담당 관원에 대해서는 지식을 번조하는 일을 사옹원 관원에게 분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봉상시 관원을 배정했는데,¹⁶⁾ 이는 국장용 지식의 제작이 재질의 구분을 초월해 의례의 엄중한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실제적인 제작은 ‘사지석소’에서 관장했으며,¹⁷⁾ 실무 인원에는 ‘사지석 감조관’의 봉상시 관원 아래 ‘사지석소 서리’로 사옹원 관원이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배치된 인력에 따르면 백자 지식 감조관 1원으로 종6품의 봉상시 주부가 임명된 한편, 석제 지식 감조관 1원은 애초에 종4품의 봉상시 첨정이었지만 해당 관원이 표석소 담당으로 옮겨가면서 삼방 감조관이던 관원이 업무를 겸했다고 기록해, 두 지식의 담당이 다르게 지정된 것을 볼 수 있다.¹⁹⁾ 이러한 소관별 진행에 따라 도청의례와 삼방의례에 백자 지식을 위한 물력과 인력 및 제작 단계별 논의들이 수록된 것을 비롯해, 제작 과정의 상세한 보고들은 ‘사지석소 수본질’로 추려져 석제 지식을 관장한 ‘석지석소 수본질’과 별개로 수록되었다.

以爲 舊誌石 若有餘地 則只當添刻 而若無餘地 則當用新件云矣 壽興曰 當初計字排刻 寧有餘地乎 維重曰 然則新件誌文 當用江華石 此石品甚堅剛 可傳久遠 而猶不如燔造者之 無模糊磨滅之患 臣意則石刻一件 備儀用之 燔造一件 竝用爲可矣 上從之”：해당 기록은 『현종개수실록』에서만 확인되며 원래 실록의 같은 날짜 기사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이처럼 개수실록의 기사가 원래 실록의 기사보다 천룡에 관해 상세한 논의를 담고 있는 점은 『현종개수실록』에서 1673년에 걸쳐 영릉의 구릉을 조사하고 천룡을 논의 하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건 추가된 점과도 상통하여, 개수 과정에서 관련 기록의 중요도가 재고된 것을 보여준다.

- 16)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都廳儀軌, “都監郎廳 以摠護使意啓曰 誌石燔造之役 不可付之 於司饗院官員 故奉常寺官員一員 依例定送之意 既已陳達於榻前矣 依此分付舉行 何如 傳曰 允 [以奉常主簿柳時蕃差下]”
- 17)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都廳儀軌, “沙誌石所 [掌燔造誌石事]”
- 18)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三房儀軌, “沙誌石監造官一員 奉常寺主簿柳時蕃(……)沙誌石所書吏一 朴忠樑 [司饗院諸員](……)”
- 19)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三房儀軌, “石誌石監造官一員 奉常寺僉正崔俊衡 [移監 表石所 代本房監造官 廣興倉副奉事 趙景望 兼察] 沙誌石監造官一員 奉常寺主簿柳時蕃(……)”

1673년 백자 지식은 서사관 역시 석제 지식과 구분되게 정해졌다. 관련 인원을 살펴보면, 천릉 지문을 고쳐 쓴 송시열은 지문 제술관이자 석제 지식의 서사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석제 지식을 위한 지문의 초도(草圖) 서사관은 봉상시 정(正) 이유상이 맡았다. 백자 지식에 대해서는 서사관에 전임 도사(都事) 유이승, 지문의 초도 서사관에는 홍문관 응교 윤심을 배정했다.²⁰⁾ 초도 서사관의 경우 처음 윤심을 임명한 이후 여러 번의 변경을 거쳤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시 윤심이 맡아 그가 쓴 초도 25장을 봉진하기에 이르렀다.²¹⁾

백자 지식의 실제 서사관은 책임자를 고르기 위한 신중한 탐색 끝에 결정되었다. 백자 지식 서사관에 대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앞서 언급한 『승정원일기』 현종14년(1673) 7월 5일자 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된다.²²⁾ 내용은 충호사 좌의정 김수홍과 공조판서 이정영, 호조판서

20)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三房儀軌, “誌文製述官 左議政宋時烈 石誌石書寫官 左議政宋時烈 草圖書寫官 奉常寺正李有相 沙誌石書寫官 前都事柳以升 草圖書寫官 應教尹深 (……)”

21)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三房儀軌, “癸丑八月初五日 沙誌石草圖書寫官實差 弘文應教尹深 有頃 代獻納魚震翼 陞實書寫事 摠護使教是前已爲定奪爲有置 明日爲始逐日仕進書寫之意 掌務書吏告課舉行事 [司諫院]”;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都廳儀軌, “癸丑八月二十八日 都監啓曰 書寫官 宗簿寺正尹深所寫 沙誌文草圖二十五張 封進之意 敢啓 傳曰 知道”

22) 『承政院日記』顯宗14年(1673) 7月 5日, “(……)正英曰 誌石盛之木櫃 則石函恐有太潤之慮矣 上曰 用木櫃者 慮有齟齬傷缺之患耳 以薄板爲櫃 則雖朽 而似不害於誌石矣 壽興曰 誌石藏函時 如有空處 以沙實之 則可以沕合矣 維重曰 以帶束 束納于石函 則好矣 上曰 磁器誌石 體薄 恐不免反張矣 壽興曰 束而納之 似是勝矣 維重曰 磁器與誌石有異 當以回回青書之 而使未曾書者 書之則筆頭必大 不能作字 而寫字官李益新 曾經累書 善於用筆 此則與元誌石 亦當有間 不必簡於朝士 使益新書之 何如 上曰 朝士中 無有曾寫者耶 壽興曰 正英 嘗書之云矣 正英曰 臣三十歲前 果嘗一次書之 而今則目昏矣 上曰 何年耶 正英曰 壬午年間矣 上曰 初書之耶 正英曰 然矣 其時臣年二十七矣 書之時 以石問朱 書之矣 上曰 沙礪誌石 一件則使益新書之 一件則使正英書之 御覽後 當取舍矣 若以青書之 則若綵色 水飛而調用之耶 正英曰 磨而書 上曰 若屑耶 正英曰 若沙矣 維重曰 品貴難得 故不敢水飛 而書之甚難矣 正英曰 石問朱 調墨雖善 而燐後或有漫漶者 燐後或甚好云 好不好不可豫知矣 上曰 回回青 本質墨 而燐則青 石問朱 本質赤 而燐後黑耶 正英曰 然矣 微曰

민유중 등이 배석해 지식을 목궐에 담을지 석함에 담을지를 논의하며 이어지는 문답으로, 동시기 백자 제작에 관한 인식 또한 보여준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정영이 먼저 석함에 넣으면 공간이 너무 클 우려가 있으니 목궐에 넣는 것을 제안하자, 현종은 목궐이 틀어져 어그러지고 상할 것이 우려되지만 얇은 판의 궐은 비록 썩더라도 지식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수긍했고, 김수홍은 지식을 함에 넣을 때 빈 곳이 있으면 모래를 채우는 것으로 맞출 수 있다는 의견을, 민유중은 띠로 묶고 석함에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어, 현종이 ‘자기 지식’이 얇아 뒤틀릴 것을 염려하자 김수홍은 동여매 넣으면 괜찮을 것이라 답했다. 한편, 민유중은 자기와 지식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마땅히 회회청으로 써야 하는데, 일찍이 써본 적이 없는 자가 쓰게 되면 필히 붓끝이 커져서 글자를 쓸 수 없지만, 서자관(書字官) 이익신은 이전에 누차 써본 적이 있고 붓놀림이 좋으며, 이번은 원래의 지식과도 당연히 다르니 신하들에게 연락할 필요 없이 이익신에게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현종은 동석한 신하들 중에는 일찍이 써본 자가 없는가를 물었고, 김수홍은 이정영이 써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에 이정영은 30년 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지만 이제 눈이 어둡다는 답을 내놓았고, 현종이 어느 해였는지를 묻자, 임오년, 즉 1642년이라 아뢰었다. 또한 현종이 처음 써본 것이었는지를 물은 데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당시 자신이 27세였고 석간주로 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종은 사기로 번조하는 지식 1건은 이익신이 쓰게 하고, 1건은 이정영이 쓰도록 해서 이를 어람한 후에 취합하겠다고 명하는 한편, 청화로 쓴다면 채색을 수비, 즉 물에 넣고 휘저어 잡물을 없애고 조절해 쓰는 것인지도 물었다. 질문에 대해 이정영은 같아서 쓴다고 답했고, 가루인지를 묻는 현종의 추가 물음에는 모래와 같다고 답했다. 이어서 민유

石間朱 燔後或有黃者矣 上曰 石間朱 産何處耶 維重曰 嶺南有之 壽興曰 青華 則燔後乃滅 蓋以浮輕也 維重曰 石類爲重 故入火不滅矣 正英曰 沙器燔造時 見之則所燔諸器 有如飛缺之狀 此時似窳矣(……)”

중은 물품이 귀하고 얻기 어려우므로 감히 수비할 수 없으며 글씨를 쓰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의견도 더했다. 여기에 이정영은 석간주가 먹의 조절에는 비록 좋지만 번조한 후에 간혹 어지럽혀져 번지기도 하고 혹은 매우 좋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좋고 나쁨을 미리 알 수는 없다고 첨언했다. 이후로도 현종은 회회청은 본질이 먹이었다가 번조하면 푸르게 되고 석간주는 본질이 붉지만 번조 후에는 어두워지는지를 물었고, 이정영이 그렇다고 답하자, 동석해 있던 병조참판 김휘는 석간주가 번조한 후에 때로 누렇게 되기도 한다는 답변을 추가했다. 이에 현종은 석간주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궁금해했고, 민유중이 영남이라고 답한 것도 볼 수 있다. 아울러, 김수흥이 청화가 번조 후 지워진 것은 대개 들뜨고 가벼워서라고 하자, 민유중이 광석류는 무거워서 불에 넣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이정영은 사기를 번조할 때 여러 그릇들이 구워지는 바에는 날려 없어진 듯한 모양도 있어서 이때는 이지러진 것과 같다는 설명을 더하기도 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해 보면, 1673년의 결정에는 사대부층에 확산되어 있던 백자 지식의 제작 경험이 주요하게 참고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종이 백자 지식의 제작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서사관을 정하는 데에 신중을 기했던 점도 확인된다. 이는 민유중이 이익신을 추천한 것에 대해 현종이 곧바로 수용하기보다 다른 신하들에게 백자 지식에 서사(書寫)한 경험을 묻고, 이정영이 언급되자 관련 내용에 질문을 거듭하며 그 경험을 상세히 파악한 뒤에야 이익신과 이정영을 모두 쓰게 해서 어람 후 정하겠다고 한 내용으로 잘 드러난다.²³⁾ 또한 서사와 번조 과정 자체에 관심을 두고 회회청, 즉 청화 안료의 쓰임을 석간주, 즉 철화 안료와 비교하며 발색을

23) 『승정원일기』의 기사와 달리,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에 따르면 이후의 구체화된 논의에서는 백자 지식 서사관 후보로 이정영을 거론하지 않았고, 명정(銘旌) 서사관으로 배정했다. 이정영의 명정서사관 소임은 의궤 내 참여인력의 서계와 논상을 기록한 도감 별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탐구하는 문답들은 서사관의 선정 뿐 아니라 안료의 특성과 번조의 원리 및 품질에 이르기까지 현종이 백자 지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관심과 노력을 보여준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논의가 발전된 상황은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에서 확인된다. 의궤 내 1673년 7월 9일자 논의에 따르면, 백자 지식에 글씨 쓰는 소임은 단지 필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써본 경험이 있어야한다고 재차 강조되었고, 사대부 중 필법이 뛰어나면서 백자 지식의 서사 경험이 있는 후보자로 전임 부사 홍석구, 전임 도사 유이승, 세마 조상우가 추천되어 이들에게 초번한 지식에 각기 써보도록 한 뒤에 선별하기로 했다.²⁴⁾ 이에 초번한 지식 6장이 도감에 올라온 뒤 추천된 세 명이 도감에 나아가 각기 서사했으며, 글자의 느낌과 빠름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진 후 필법에 대한 판단과 서사관의 선정을 청하여, 세 건을 모두 정변해 검토하겠다는 하교가 있었다.²⁵⁾ 그 후 재번한 3장을 판별하여 비로소 유이승이 발탁되었다.²⁶⁾

전술한 장서각 소장 청화백자 지식 3점은 이처럼 1673년 의궤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천릉 과정에서 백자 지식의 서사관을 선별하기 위해 시서(試書)를 거치며 매안용 지식과는 별개로 서체 비교를 위해 시험 번조까지 진행한 상황을 입증한다. 해당 3점은 길이 21.8~22cm, 너비 15.8~15.9cm, 두께 1.3~1.5cm 정도로 규격이 거의 같고, 유색이 다소 회백색을 띠나 모두 정선

24)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都廳儀軌, “都監郎廳 以摠護使意啓曰 燔造誌石書寫之任 不可只取其筆法 必須曾經書寫然後 可以寫出矣 士大夫中 前府使洪錫龜 前都事柳以升 洗馬趙相恩等 筆法皆精 且寫燔造誌文云 此三人並爲啓下 誌石初燔後使之各張書寫 以爲取捨之地 何如 傳曰 允”

25)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都廳儀軌, “都監郎廳 以摠護使意啓曰 沙誌石書寫官 洪錫龜 柳以升 趙相恩等 來詣都監 各張書寫 敢此封進 而以其書字遲速言之 則洪錫龜最速 趙相愚次之 柳以升又次之 至於筆法之優劣 唯在睿裁 當俟下敎定用某人之筆矣 敢啓 傳曰 此三張 並正燔以來取稟”

26)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都廳儀軌, “都監郎廳 以摠護使意啓曰 沙誌石初燔後 洪錫龜等所書三張 再燔上送矣 敢此封進 以備睿覽之意 敢啓 傳曰 使柳以升書寫”

된 태도에 단정한 필치로 작성되어 있다. 품질 면에서 1점은 전체적으로 발색이 진하면서 간혹 필획이 번진 듯 두터운 부분이 있고 (삽도1-①), 1점은 일부 자획이 진하거나 연하게 표현되어 발색이 전체적으로 고르지 않으면서 한편에 번조 과정에서 갈라져 터진 부분이 있다 (삽도1-②). 나머지 1점은 다른 두 점에 비해 필획이 얇고 글자가 작아 자간에 보다 여유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발색이 연하고 일부 자획은 흐릿하게 나타난다 (삽도1-③). 의례에는 시서 과정에 번조 품질을 검토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1점은 글자가 희미하면서 갈라진 틈이 있고, 다른 2점은 완성은 되었지만 1점이 글자가 희미하다고 지적되었다.²⁷⁾ 이에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현전하는 유물의 1점에서 발견되는 갈라진 부분과 1점에 글자가 희미한 점을 연결하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었다.²⁸⁾

이처럼 의례에 기록된 품질 평가는 현존 유물의 번조 상태가 제작 당시부터 인식된 측면을 보이며 이들이 1673년 시서 과정의 결과물임을 분명히 해준다. 다만, 기록에는 번조 상태의 묘사만 있을 뿐 각 건의 작성자 정보가 없고, 실제 유물에도 작성자는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개개 유물이 3인의 후보 중 누구의 작품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현존 유물은 시서에서 얻은 부산물로, 최종의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1673년의 백자 지식을 온전히 대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해당 유물이 1673년 천릉에서의 백자 지식 제작 시도를 실증하여 의례에 서술된 당시 관요 백자의 수준을 실물로 보여준다는 점은 그 가치를 명백히 드러내며, 자료의 중요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27)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沙誌石所手本秋, “癸丑七月三十日 誌文三片燔出 則一片不但字畫熹微 亦爲折裂爲有跡 二片段皆得完成 而此中一片亦未免熹微之患 盖山墨濡筆之際 不能均一之致云云爲臥平事 堂上手決內 到付.”

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앞의 책, 2019, 24쪽.

Ⅲ.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에 기록된 지식 체제와 제작 개요

1673년 의궤에는 백자 지식의 개요가 석제 지식과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내용에는 각 지식의 크기와 작성 방식 뿐 아니라 운송과 매납 방법까지 요약되어 재질별 왕실 지식의 실제적인 제작 규범과 절차를 알려준다. 특히 백자 지식의 제도와 형식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기록한 점은 조선시대 백자 지식의 규격 개념에 대해서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제까지 백자 지식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17세기 후반 사대부가 문서 및 18세기 전반 왕실 문서의 내용이 소개된 바 있었다. 이러한 기록들에는 간단한 견양(見樣)의 도식이 수록되거나 견양의 존재 및 지문 작성에 따른 크기 변동의 가능성이 언급되어, 관련 분석 역시 견양을 활용한 지식의 제작 사실을 검토해왔다.²⁹⁾ 그중 1718년 정리된 『무술점차일기』의 경우, 18세기 전반 왕실 일원을 위한 지식 견양의 도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 가치가 크고, 실록에 수록된 영조30년(1754) 하교 중 효종 영릉의 백자 지식 잔여분을 궁궐에서 얻은 뒤에 ‘일기’를 수찬했다고 한 내용으로부터 이때의 ‘일기’가 『무술점차일기』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³⁰⁾ 해당 도식이 백자 지식의 견양

29) 선행 연구를 통해 주목된 바로,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서계선생집(西溪先生集)』에서는 1675년 가문의 상례를 진행하면서 문종이 보관하던 자기제 지식의 견양과 새로 제작하는 지식의 크기를 비교하고 번조 시의 변화를 예상하며 글자의 간격과 획수, 행별 글자 수가 지식의 크기와 개수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또한, 1718년 영조의 연잉군 시절 사친인 숙빈 최씨의 장례를 정리한 『무술점차일기(戊戌苫次日記)』에 지식의 크기를 보여주는 도식이 ‘지석양본장광견양(誌石兩本長廣見樣)’으로 수록된 점도 소개되어, 현전하는 청화백자 지식들이 비교적 일정한 크기로 확인되는 현상과의 연관성이 추론되었다. 『서계선생집』과 관련한 내용은 김세진, 앞의 논문, 2010, 60-61쪽; 김세진, 앞의 논문, 2011, 91-92쪽 참고. 『무술점차일기』와 관련한 내용은 장남원, 앞의 논문, 2022, 84-87쪽 참고.

30) 『英祖實錄』英祖30年(1754) 8月 5日, “敎曰(……)近者古藏中 又得磁誌二片 卽寧陵誌

을 의도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확인되는 기록은 재질을 비롯한 지식의 제반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형태만 간략히 묘사한 도식이며, 크기 또한 수치의 제시 없이 길이와 너비의 상대적인 비율 정도만 나타나, 당시 지식의 실제 사양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1673년 의례의 내용은 도식을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석지석’과 ‘사지석’의 분명한 재질 구분 아래 상세한 수치로 크기 정보를 명시했고, 이는 왕실용 지석을 넘어 동시대 백자 지식에 대한 인식과 제작 관행을 살펴보는 데에도 유용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지금까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국장 및 예장 관련 의례 기록을 통해 왕실용 백자 지식의 전통을 새롭게 밝히는 동시에, 조선시대 자기제 지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긴요한 것이다.

1673년 천릉에 준비된 백자 지식의 개요는 석제 지식에 뒤이어 기록되었다. 내용에는 석제 지식과 공통되는 부분이 따로 언급되지 않거나 상대적으
로 간략한 편이므로, 생략된 서술에 대해 석제 지식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석제 지식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작성의 초점은 1659년 원래 국상 과정에서 설명과 비교적 일관되지만,³¹⁾ 1673년에는 세부적인 기술이 더해졌다. 내용에 따르면,³²⁾ ‘석지석’ 2편은 강화석을 썼고 크기는 예기척

文也 既有其志 又得此誌 其若指教 命考臚錄 則驪州寧陵 蓋用石與磁兩誌 而其時下教中有既用磁誌 石刻則似當爲次之教 以此仰惟 則似是事關先陵 故不爲遽用磁誌 而特用兩本也 噫 幾年之後 得此磁誌於大內 更修日記之後 猶有此教 是豈偶然也 此後則事關先陵外誌文 永用磁誌 以此定式 噫 今茲之教 遵列聖之儉德 垂後世以永久 後之嗣王 何敢違焉”

31) 『孝宗國葬都監儀軌』三房儀軌, “誌石二片 [書寫官 吏曹判書宋浚吉 因傳教追啓下] 用忠州石二片 各長五尺 廣四尺五寸 厚六寸九分 用造禮器尺 上下片以朱紅眞粉印札 字行二片皆書 又以銅鐵縱橫爲二帶 釘其帶端使不得參差 前例誌文八件印出作簇四殿進上 而今番段因傳教誌文不爲印出 故所入雜物不用 而物目則依前臚錄載錄以爲後考 今番誌文字數三千三百三十字 年月日十字合三千三百四十字 高低空行并計每片畫一千九百間式畫間末端書年月日謹誌 以始書石爲蓋以次書石爲底 蓋石外面居中大書 孝宗大王寧陵誌石 八字 自忠州浮取實預差并四片內 實差二片曳入鍊用 預差二片在龍山江邊”

32)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三房儀軌, “石誌石二片 [用江華石 長五尺 廣四尺五寸 厚六寸九分 用禮尺 初用麤沙 次用細沙碇玉沙砥石等物 畢磨正後 計誌文字數 以朱紅印札字間

으로 길이 5척, 너비 4척 5치, 두께 6치 9푼이었다. 제작 과정상, 처음에는 거친 모래, 다음에는 가는 모래 및 옥이나 돌을 갈거나 깎는데 쓰는 적갈색 모래인 정옥사(碇玉沙), 숫돌 등으로 매끈하게 갈아낸 후, 글자 수를 헤아려 주홍색 선으로 칸을 나누며, 첫 번째 향이자 높이 올리는 극행(極行)은 2칸을, 중간으로 올리는 중행(中行)은 1칸을 비워 쓴다고 설명했고, 추가 찬술된 묘지문은 1글자, 자손록(子孫錄)은 2글자를 내려 쓴다고도 기재했다. 이어서, 처음 묘지문의 말단과 추가한 묘지문 말단에 각 연월일을 적고 아래 말단에는 제술관의 관직과 성명 및 ‘근지(謹誌)’를 적으며, 새기는 작업을 마친 후에는 먼저 깨끗하게 닦고 백납을 입혀 윤을 낸 뒤 글이 시작되는 돌을 뚜껑으로, 뒤이어 적은 돌은 바닥으로 해서 서로 맞춰 결합하여 글자를 새긴 면이 안쪽 면이 되도록 한다고 기술했다. 더불어, 네 모서리는 ㄱ자형의 격자곡철(隔子曲鉄)로 사이를 띄우며 기름과 재, 솜을 섞은 유회(油灰)로 네 모서리를 감싸 닳거나 부딪치는 것을 막는다고 적었고, 뚜껑돌 외면에는 두 줄로 ‘조선국 효종선문장무신성현인대왕 영릉 지석(朝鮮國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寧陵誌石)’의 19자를 크게 쓰고 밖에는 십자형 철을 둘러 결구하며 땀하여 붙인다고 설명했다. 완성된 석제 지석은 글자 수 4060자로, 칸 수는 빈 칸을

極行空二間 中行空一間書之 追撰誌文低一字書之 子孫錄低二字書之 初誌文末端及追誌文末端 各書年月日 下末端 書製造官職姓名及謹誌二字 畢刻後洗淨染入白蠟以取色 以始書石爲蓋次書石爲底相合 而以刻字之面爲裏面 四隅隔以隔子曲鉄 衣以油灰安於四隅以防磨戛 蓋石外面雙行大書 朝鮮國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寧陵誌石 十九字 外以帶鉄十字形結之 而用汗音連接 今番字數四千六十字 間數空間并四千六百四十四間 前例則印出作簇四殿進上堂郎分兒 而今番用己亥年例不爲印出 後因傳敎中使次知印出一件 內入後結裹封標 前例段次知監造官前期奉出交付 山陵都監卽爲入來 而今番段發靱日及下玄宮日臨時追刻 故監造官仍留山陵畢刻後交付 大浮石所入來 輸運段以一房車子運出江頭從靑路奉進 舊誌石奉出後亦爲印出一件內入 預差石二片 因傳敎移給明善公主家 釘鍊則七月十四日 始役七月二十七日 畢役磨正則以募軍一百名晝夜分半七月二十七日 始役八月初十日 畢役砥鍊則以募軍十四名八月十一日 始役同月二十四日 畢役刻役則八月二十五日 始役九月二十三日 畢役同月二十四日 奉進山陵 埋安於魂遊石下 石誌石在左 沙誌石在右”

합해 4644칸이었고, 앞 시기 사례로는 제작 후 인출해 족자를 만들어서 네 전에 진상하고 당랑(堂郎)에도 나누었지만, 1673년에는 1659년 기해년 현종의 원래 국장 때처럼 인출하지 않았다가 이후 전교로 인해 중사(中使)가 맡아 인출한 1건을 내입하고 싸매어 봉표(封標)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석을 완성하면 앞 시기에는 감조관이 기일에 앞서 받들어 내고 산릉도감이 들어와 보고했지만, 1673년에는 발인일과 하현궁 날짜에 임박해 추가로 새겼으므로 감조관은 산릉에 계속 머무르며 새김을 마친 후 내어주고 대부석소(大浮石所)가 들어와 보고했다는 내용도 보인다. 그 외, 윤반은 일방(一房) 수레로 강가의 나루터로 옮겨 물길로 나아갔으며, 구릉의 지식은 꺼낸 뒤 인출한 것을 1건 내입했고, 예비로 준비한 돌 2편은 명성공주가로 넘겨주었다고도 적었다. 내용의 끝부분에는 제작을 마치고 매안할 때까지의 단계별 일자를 적었고, 매안한 위치는 혼유석 아래로 석제 지식은 왼쪽, 백자 지식은 오른쪽에 두었다고 명기했다.

언급된 구릉 지식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해당 2편을 구릉에서 받들어 낸 후 일방이 마련한 수레로 옮겨 독음강을 따라 물길로 올라갔고, 새 능소에 닿은 후에는 뚜껑석 외면의 크게 쓴 글자 왼쪽에 ‘구지석(舊誌石)’ 세 글자를 새겨 능 밑 서편으로 몇 보 떨어진 곳에 매안했다는 기록도 추가로 파악된다.³³⁾

석제 지식에 이어지는 백자 지식의 개요를 살펴보면,³⁴⁾ ‘사지석’ 25편은

33)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 三房儀軌, “舊誌石二片奉出後 以一房車子京畿曳運軍運出禿音江 由水路上去到新陵後 上片外面大字之左刻 舊誌石三字 埋安于陵底西邊數步許地”

34)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 三房儀軌, “沙誌石二十五片〔長八寸六分 廣六寸 厚六分 用禮尺 初誌文二十張 追誌文五張 燔造于廣州沙器所 用宣土慶土參半交合 初燔後造沙匙磨戛前面使之滑淨 以朱紅畫間 一張空間并一百八十間 字數及高低與石誌石同 井間右隅書第幾張 井間下隅書共幾張 調山墨書之再燔以出 監造官七月初八日出去 書寫官八月初五日出去 八月十一日始燔 九月十一日畢燔 盛於一房所造黑漆木函 由紅路奉往 埋安時每片中間 略鋪白土以防動搖 函內四面空曠處實以細沙 安於石函 石函內空曠處亦以細沙實之 埋安處見上 陪進山陵時以彩輦奉往”

예기적으로 길이 8치 6푼, 너비 6치, 두께 6푼의 크기이며, 처음 묘지문 20장, 추가 묘지문 5장을 ‘광주사기소’에서 번조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선천토와 경주토를 반씩 섞어 초번한 후 사시(沙匙)로 앞면을 문지르고 두드려 매끄럽고 깨끗하게 하며, 주홍색으로 칸을 그려낸 한 장당 빈 칸을 합해서 180칸이었다고 적었다. 이어서, 글자의 수와 높고 낮음은 석제 지식과 모두 같지만, 정간한 오른쪽 모서리에는 해당 매수를 뜻하는 ‘제 몇 장’을, 아래 모서리에는 총 매수를 뜻하는 ‘공 몇 장’을 적으며, 산묵(山墨)을 조절해 쓰고 재번해 낸다고도 약속했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의 주요 일자를 밝혀, 감조관의 파견은 7월 8일, 서사관의 파견은 8월 5일이었고, 8월 11일 번조를 시작해 9월 11일 번조를 마쳤다고 작성했다. 완성된 지식은 일방이 만든 흑칠목함에 담아서 강을 따라 물길로 보냈다고 하면서, 매납할 때는 매 편마다 중간에 백토를 넣어서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을 막고, 함 안쪽 네 면의 빈곳에는 가는 모래를 넣으며, 석함에 안치할 때 석함 안쪽의 빈 곳에도 가는 모래를 넣었다고 기술했다. 매안 위치에 대해서는 따로 적지 않고 석제 지식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으며, 산릉에 나아갈 때는 채여(彩輦)로 받들어 갔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했다.

백자 지식의 개요에 밝혀진 형식과 관련해, 전술한 장서각 소장 유물에서도 3점 모두 한 면에 10행씩 행별 18자로 총 180칸에 걸쳐 기록한 것이 확인된다(삽도 1). 다만, 현존 유물에서 작성이 윗면에만 확인되고 각 모서리에 아무런 표기가 없는 점은 이들의 시범 제작 상황을 거듭 시사하며, 개요의 서술은 이후 최종 완성품에 따라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존 유물의 크기가 대략 길이 21.8~22cm, 너비 15.8~15.9cm, 두께 1.5cm로 측정되는 점은,³⁵⁾ 의뢰에 기록된 길이 8치 6푼, 너비 6치, 두께 6푼의 크기에 대해 유용한 비교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전하는 사도세자의

35) 박경수, 앞의 글,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2026.4.29. 접속);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앞의 책, 2019, 24쪽.

청화백자 묘지가 길이 21.8cm, 너비 16.7cm, 두께 2cm로 추정되는 가운데, 1762년 작성된 『사도세자에장도감의궤』에서 백자 지식의 크기를 예기적으로 길이 8치 5푼, 너비 6치 5푼, 두께 7푼으로 적은 것과도 비교될 수 있다.³⁶⁾

개요에서는 백자 지식의 매안을 위해 구체적인 규범이 새로 논의된 것도 보인다. 석제 지식이 석각된 면을 서로 마주보게 겹치고 대철로 묶는 것과 달리, 백자 지식은 일방이 제작한 후칠목함에 담은 후 석함에 넣는다고 설명한 것이다. 의궤의 관련 내용에 따르면, 백자 지식은 애초부터 석제 지식과 구별되어 별도의 봉안 제구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었고, 이에 이전의 기록을 참고해 죽책(竹冊)을 매안할 때 산릉도감에서 석함을 만들어 쓰는 방식을 백자 지식에도 적용하기로 결정된 바 있었다.³⁷⁾ 이후 백자 지식이 완성될 무렵에는 산릉도감에 석함의 크기 정보 및 계측을 위한 목척(木尺)의 견양이 함께 보내졌으며, 이때 지시된 크기는 석함 내 길이 1척 2치, 너비 7치 6푼, 높이 6치였다.³⁸⁾

한편, 개요에 이어 새로운 능소의 매안 소용품을 열거하며 백자 지식의 소입 물품과 수급 사항을 정리한 내용도 주목된다.³⁹⁾ 특히 백토에 관해서는

36) 『思悼世子禮葬都監儀軌』 砂誌石所儀軌, “砂誌石五張 以磁燔造事(……)誌石 長八寸五分 廣六寸五分厚七分 [用禮器尺](……)”

37)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 三房儀軌, “誌文一件燔造事 既已定奪舉行 而此則與石刻誌文不同 似當有奉安裏襖等諸具是乎於 壙中埋安時 亦有盛置之具爲乎喻 取考謄錄 則竹冊埋安時 自山陵都監有石函造用之事 燔造誌文段置 依此爲之爲乎乙喻 摠護使手決內 奉安裏襖諸具及石函磨鍊造作 宜當”

38)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 三房儀軌, “山陵都監了 爲相考事 沙誌石所盛石函造作事 前已移文爲有在果 同沙誌石今已畢燔造 故石函長廣尺數及木尺見樣 并以後錄爲去乎 相考施行向事 後 石函內 長一尺二寸 廣七寸六分 高六寸”

39)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 三房儀軌, “沙誌石二十五片 [添載於石誌運去船] 所入 慶州土二十斗 宣川土六十斗 [自都廳移文] 水土十斗 [利川] 石灰十斗 [原州] 木賊五冬音 [原襄道] 山墨一兩 [戶曹] 正書黃筆十五柄 草圖黃筆三柄 中草次黃筆四柄 眞墨三丁 [以上工曹] 書板一介 [別工作] 木書墳三介 [本房] 裏次白木二幅付襦袱六件 [濟用監造作進排] 草圖次草注紙二卷二張 [豐儲倉] 隔子次去核綿花三斤 見樣次草注紙三張 削刀三柄所入正鉄二斤

개요의 기록과 함께 1673년 관요에 선천토와 경주토가 공급된 사실이 재확인되어 조선시대 관요의 백토 조달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다.⁴⁰⁾ 목록을 살펴보면, 백자 지식 25편을 석제 지식 운반선에 추가로 싣는다고 재차 밝히며 주요 원료의 조달 내역을 차례로 작성해, 경주토 20두와 선천토 60두는 도청에서 이문하고, 수도 10두는 이천(利川)에서, 석회 10두는 원주(原州)에서, 목적(木賊) 5동음은 현재 강원도에 해당하는 원양도(原襄道)에서, 산목 1량은 호조에서 진배한다고 기재했다. 이어 필묵과 서판, 서진, 싸개, 지류 등도 열거했는데, 그 중에는 물건 사이가 뜨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의 씨를 제거한 면화 3근과 건양 용도의 초주지 3장도 포함되었다. 또한 전술한 개요대로 매안용 소입품으로 흑칠목함 1부를 일방 진배로 적었고, 지석을 함에 넣을 때 사용하는 가는 모래 2두 5승, 그리고 선천토와 경주토를 섞은 백토 1두는 쓰고 남은 것을 이어서 쓴다고도 작성했다.

개요와 소입 목록에 보이는 ‘산목’의 내용도 주목을 요한다. 개요에서 백자 지식에 산목을 조절해 쓰고 재변한다고 기술한 것과 관련해, 소입 목록에는 산목 1량을 호조 진배로 적은 것이다. 이와 함께, 사지석소가 올린 번조 보고 중에는 산목을 시험 삼아 써보니 색과 품질이 그대로 쓸 수 있겠다는 내용이 보이고,⁴¹⁾ 시험 번조한 지식을 평가하며 글자가 희미한 것에

[別工作] 馬尾節二 綃節一 白茅布十尺 油芎一浮 厚白紙三卷 燒木六十六法[司饗院] 白木四幅付襦袢二件[濟用監] 帶佩四介 小櫝二部 架子二部[別工作] 沙誌石埋安時所入 黑漆木函一部[一房] 細沙二斗五升 宣慶交合白土一斗[以上用餘仍用] 石函一部[山陵]

40) 조선시대 백토 관련 자료를 정리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17세기 기록상 선천토는 1656년 『연도기행(燕途紀行)』의 기록을 통해, 경주토는 1660년 『승정원일기』 및 1682년 『숙종실록』의 기록을 통해 확인되며, 경주토와 선천토가 함께 기재된 내용은 『승정원일기』의 1682년과 1688년 기록 및 1690년 『비변사등록』의 기록이 알려져 왔다. 상세 내용은 이종민, 「조선시대 官窯로의 백자원료 조달방식」, 『역사와 담론』 73, 호서사학회, 2015, 373-375쪽 참고.

41)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 沙誌石所手本秩, “癸丑七月十九日(……)同日 山墨亦爲試寫 則色品如此 似可仍用是齊 摠護使手決內 依”

관해 산물을 붓에 균일하게 적시지 못해서였다는 보고를 언급한 내용도 확인되므로,⁴²⁾ 이때의 산물은 청화 안료를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시대 청화 안료는 앞서 살펴본 1673년 『승정원일기』 기사의 현종과 신료들이 나눈 논의에서처럼 대개 ‘회회청’으로 지칭되었고,⁴³⁾ 그 명칭의 사용은 조선전기부터 확인된다.⁴⁴⁾ 이처럼 익히 알려진 용어 대신 1673년 의궤에서 ‘산묵’이 등장한 것은 사지석소의 보고로부터 추측하기에, 번조 품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작 현장에서의 표현이 전달되고 이후 개요와 소입 물목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정리되면서 의궤에 수록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1757년 거행된 정성왕후 국상의 기록인 『정성왕후국장도감의궤』에서 번조에 대한 보고에는 청화의 상태를 묘사하며 ‘산묵’을 적고,⁴⁵⁾ 소입 물품 기록에는 ‘회회청’의 표기가 확인되는 점과도 상통한다.⁴⁶⁾ 그러므로 1673년 의궤에 보이는 ‘산묵’은 청화 안료에 대해 당시 통용되던 표현으로 제작 현장에서의 속칭이 반영된 것이며, 이는 조선시대 청화백자와 관련해 이제까지 알려진 문헌의 범위를 넘어 제작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새로운 자료로 의미가 깊다.⁴⁷⁾ 나아가, 이러한 기록은 전술한 장서각 소장

42) 해당 내용의 원문은 주27) 참고.

43) 『承政院日記』顯宗14年(1673) 7月 5日: 원문은 주22) 참고.

44) 조선전기 청화 안료를 ‘회회청’으로 지칭한 것은 『세조실록』의 1463년 5월 24일자 및 1464년 8월 7일자 기사 등을 통해 이른 시기부터 용례가 알려져 있고, 『성종실록』의 1488년 1월 23일자 기사에서는 ‘회회청’을 중국에서 구입해오는 것으로 밝혔다. 내용에는 당시 화원이 공무역에서 구입할 회회청의 값을 받았으나 구입해오지 못한 사실을 보고하며, 회회청이 조선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쓰이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成宗實錄』成宗19年(1488) 1月 23日 기사 참고.

45) 『貞聖王后國葬都監儀軌』沙誌石所, “丁丑四月二十七日 一爲馳報事 昨日入釜誌石五張 今已出釜是在果 面勢之平正一如初燔樣子是遣 字畫宛轉少無深漬間斷處 而土色潔白山墨亦極青新 匠手輩皆以平生所未觀云云(……)”

46) 『貞聖王后國葬都監儀軌』沙誌石所, “丁丑四月日(……)一誌文入啓件草圖書所用 搗鍊紙二張 紫硯一匣具 書板剪板書案硯滴各一 黃筆二柄 眞墨一丁 正書時回回青五錢 北黃毛無心筆十柄進排事(……)”

유물과 함께 1673년 관요에서의 청화백자 제작 사실 또한 증명하므로, 조선 후기 백자 연구에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하겠다.

Ⅳ. 1673년의 제작에 대한 조선후기 국장에서의 참고

1673년 천릉 과정에서 석제 지식과 백자 지식의 동반 제작이 이루어졌지만, 이후의 국휼(國恤)에서는 그 실행이 지속되기보다 석제 지식의 전통이 유지되었다. 이는 뒤이어 거행된 1674년 2월 승하한 효종비 인선왕후의 국장에서 직전해 천릉의 백자 지식을 거론하며, 석제 지식과 백자 지식의 겸용이 예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오래도록 닳지 않는 것으로는 번조한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재언급되었지만, 현종의 하교로 석제 지식의 사용이 결정된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⁴⁸⁾

조선시대 국장에서 백자 지식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다. 1757년 2월 승하한 정성왕후와 3월 승하한 인원왕후의 국장에는 영조의 전교에 따라 석제 지식 대신 백자 지식을 채택했는데,⁴⁹⁾ 이는 석제 지식으로 낭비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모색 과정에서 효종 영릉의 백자 지식 중 쓰고 남은 잔여분을 통해 1673년의 선례를 상고한 결과였다.⁵⁰⁾

47) 1673년 천릉과 1757년 국장의 의례 기록을 포함해, 조선시대 문헌에 보이는 청화 안료 관련 표현 사례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송인희, 앞의 논문, 2026, 150-152쪽 참고.

48) 『顯宗改修實錄』 顯宗15年(1674) 3月 4日, “摠護使金壽興啓曰 上年遷陵時 因宰臣陳達兼用燔造誌石矣 兼用兩件 非禮文所載 而或言久遠不利 則燔造似勝云 惟在聖上斷定 上曰以石刻用之”

49) 『貞聖王后國葬都監儀軌』 三房儀軌, “誌石 [例付本房 而奉常寺次知舉行 今番依傳教以磁誌燔用]”;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 三房儀軌, “傳曰 今番誌石亦爲燔造”;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 三房儀軌, “誌石 [例附本房 而奉常寺次知舉行 今番依傳教以磁誌燔用]”

영릉의 백자 지식에 대한 영조의 재발견은 이미 영조30년(1754)의 전교에 서도 나타났다.⁵¹⁾ 이 때 영조는 영릉에 석제 지식과 백자 지식을 함께 사용함을 들어 석제 지식에 버금가는 백자 지식의 위상을 강조했고 검덕을 준수하기 위해 백자 지식으로 석제 지식을 대용할 뜻을 천명하며 이를 정례화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전교에서 궁궐에 보관되었다고 언급한 영릉의 백자 지식에 관해서는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에서 그 정황을 찾을 수 있다. 1673년 천릉에서는 품질 문제로 쓰지 않고 물리는 퇴건(退件)과 흠 있는 파건(破件)을 제작 완료 이후 내입하도록 했으며,⁵²⁾ 지문 내용의 변경으로 해당 부분의 지식을 다시 제작하면서 앞선 번조분을 내입한 기록도 확인되므로,⁵³⁾ 관련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⁵⁴⁾

50) 『貞聖王后國葬都監儀軌』都廳儀軌, “(……)誌石浮取亦一巨弊 而刊畢印進之際 浮費多而褻慢甚矣 何幸 自內得數片磁志 卽寧陵餘片也 因此而自今明陵用磁誌 此亦體昔年盛德也 此之故 浮石浮引之弊 一舉而兩除 此除二弊也(……)”;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都廳儀軌, “(……)誌石浮取亦一巨弊 而刊畢印進之際 浮費多而褻慢甚矣 何幸 自內得數片磁誌 卽寧陵餘片也 因此而自今明陵用磁誌 此亦體昔年盛德也 以此之故 浮石浮費之弊 一舉而兩除 此除二弊也(……)”

51) 『英祖實錄』英祖30年(1754) 8月 5日: 원문은 주30) 참고.

52)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都廳儀軌, “癸丑九月十一日 都監郎廳 以摠護使意啓曰 沙誌石 今始畢播陪來 御覽次敢此封進 而退件及破件二十五張 亦爲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53)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都廳儀軌, “癸丑九月十七日 都監郎廳 以摠護使意啓曰 沙誌石 改播三張 今纔陪來矣 正件三張 副件二張 退件三張 前退件三張 並爲封進之意 敢啓 傳曰 知道”; 묘지문 수정에 따른 재번조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석제 지식의 제작 과정에서 송시열이 지문 중 잘못된 글자를 고친 것이 반영되었으므로 백자 지식에도 해당 글자가 수정되어야한다는 보고가 승인되어 재번조가 진행된 바 있었다. 또 다른 수정은 천릉 때의 하현궁과 발인 일자가 변경되면서 해당 내용을 고쳐야 했기 때문이었다. 1673년의 묘지문 수정을 위한 재번조 관련 내용은 송인희, 앞의 논문, 2026, 125-126쪽 참고.

54) 1754년 영조의 하교에서 백자 지식을 검덕의 실천과 연관 지은 내용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으나, 주로 1754년 하교의 의의에 초점을 두었고 영릉의 백자 지식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김세진, 앞의 논문, 2011, 83-84쪽; 장남원, 앞의 논문, 2022, 80-81쪽 참고.

1754년 전교로 피력된 백자 지식에 대한 의지는 1757년 정성왕후와 인원 왕후의 국상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이때에도 사지석소의 설치, 봉상시의 업무 배정 등을 비롯해 제반준비에 1673년 계축년의 기록을 참고했다.⁵⁵⁾ 1757년의 결정은 전술한 바처럼 인원왕후의 명릉에 백자 지식을 제작한다는 윤음이 『정성왕후국장도감의궤』와 『인원왕후국장도감의궤』에 동일하게 수록되었고,⁵⁶⁾ 『국조상례보편』에는 같은 내용에 이어 백자 지식을 정식(定式)으로 삼으라는 1754년의 전교가 더해져 기록되었다.⁵⁷⁾ 이후 18세기 후반에 걸쳐 국장 및 예장에 백자 지식의 제작이 연이어 이루어진 상황은 1762년 작성된 『사도세자에장도감의궤』와 1776년 작성된 『영조국장도감의궤』에 이어, 1786년 작성된 『문효세자에장도감의궤』를 통해 확인된다.⁵⁸⁾

18세기 이후 백자 지식은 1805년 정순왕후의 국장에서도 제작되었지만, 19세기 전반에는 대체로 석제 지식의 제작이 복구되었다. 이러한 회귀는 이미 1800년 정조의 국장부터 나타났다. 1800년 의례에서는 전반적으로 영조의 국장 기록과 『국조상례보편』을 참고하면서도 지식에 대해서는 백자 지식의 제작을 따르지 않았고, 대신 1789년 기유년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기고 현릉원으로 승격한 천원(遷園) 지식의 사례를 따라 석제로 준비했다.⁵⁹⁾

55) 『貞聖王后國葬都監儀軌』都廳儀軌, “山陵都監了爲相考事 取考癸丑年遷陵教時臚錄 則沙誌石埋安時除去 陪進時所盛木函 只用石函埋安事 載在臚錄爲有置 相考施行向事”

56) 해당 내용의 원문은 주50) 참고.

57) 『國朝喪禮補編』卷4 受教分類[上] 治葬, “(……)誌石浮取 亦一巨弊 而刊畢印進之際 浮費多 而製慢甚矣 何幸 自內得數片磁誌 卽寧陵餘片也 因此而自今明陵用磁誌 此亦體昔年盛德也 以此之故 浮石浮費之弊 一舉而兩除 此除二弊也(……)傳曰 今番誌石 亦爲燔造 此後永爲定式(……)”

58) 해당 의례에 기록된 백자 지식의 제작 현황과 개요는 송인희, 앞의 논문, 2026, 86-89, 130-134쪽 참고. 관련 상세 내용은 『思悼世子禮葬都監儀軌』; 『英祖國葬都監儀軌』; 『文孝世子禮葬都監儀軌』 참고.

59) 『正祖國葬都監儀軌』誌石所儀軌, “今此新陵誌石 一依己酉年例 以藍浦水洗石定用矣 誌石片數及長廣寸數段 長一尺七分 廣八寸四分 厚一寸 定實次限八十張 出見樣 自都監發關 忠淸監營 知委於該縣監 以水洗石中無欠極品擇之 又擇罔夜上送事 移文爲只爲 [堂上手決

1789년 천원 지식에 대한 결정은 1728년 무신년 효장세자의 예장에서 어제(御製) 묘지를 석각한 점을 참고한 것으로,⁶⁰⁾ 1762년 사도세자의 예장 당시 백자 지식을 제작했던 것과는 구별된다.

1800년의 석제 지식과 관련해서는 『정조국장도감의궤』에 밝혀진 당위도 주목된다. 내용에는 『국조상례보편』에 백자 지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정조대 이미 내려진 ‘회회청’, 즉 청화의 금령이 있어 이를 감히 논할 수 없으므로 1789년 기유년에 석각한 기록을 참고해 석제 지식을 쓰겠다고 명시해,⁶¹⁾ 『국조상례보편』의 준수와 정조대 청화백자 금지 조치의 경중을 헤아린 끝에 백자 지식 대신 석제 지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1800년 국장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청화백자를 포함해 갑번한 고급백자에 대한 정조의 금령은 사치품 규제의 일환으로,⁶²⁾ 1793년부터 1796년에 걸쳐 관련 지시가 거듭 내려지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⁶³⁾ 특히 1795년 기록을 통해 두드러지는 엄중한 조치가 한동안 청화백자의 생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⁶⁴⁾ 『정조국장도감의궤』에 밝혀진 석제 지식의 선택은 그 여파가

內 依]”

60) 『莊獻世子永祐園遷奉都監儀軌』 都廳儀軌, “傳曰 今番遷園時 誌文 依永陵戊申墓誌 御製親書入石之聖教爲之 誌石前期入之 櫟子則令都監先爲造成事 分付”

61) 『正祖國葬都監儀軌』 都廳儀軌, “都監郎廳 以總護使意啓曰 山陵誌石 今方修治矣 補編則以磁誌載錄 而回回青既有年前禁令 不敢議到 謹考己酉謄錄 則以藍浦石磨鍊入刻 今番亦當以藍浦石入用(……)”

62) 관련 주요 연구는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112-119쪽; 구혜인, 「朝鮮 後期 陽刻白磁 研究」, 『미술사학연구』263, 한국미술사학회, 2009, 105-106쪽; 강경숙, 『韓國陶磁史』, 예경, 2012, 514-516쪽 등 참고.

63) 『正祖實錄』 正祖17年(1793) 11月 27日; 『正祖實錄』 正祖19年(1795) 8月 6日; 『日省錄』 正祖18年 11月 16日; 『日省錄』 正祖19年 8月 6日; 『日省錄』 正祖20年 9月 29日 기사 참고.

64) 선행 연구에서는 해당 조치가 짧게는 1795년부터 1798년까지 청화백자의 제작 환경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상세 내용은 구혜인, 앞의 논문, 2009, 106쪽 참고.

1800년 국장에까지 이어지며 전례서의 규정과 선행 국장의 사례를 뛰어넘어 백자 지식의 제작을 제한하는 명분으로도 작용한 상황을 보여준다.

반면, 1805년 승하한 정순왕후의 국장에서는 다시 백자 지석이 제작되었는데, 『정순왕후국장도감의궤』에 수록된 관련 기록은 1800년 정조의 국장에 서와 다른 인식의 변화를 보여 주목된다. 1805년 논의에 따르면,⁶⁵⁾ 지석에 대한 결정을 청하며 1776년 병신년 영조 국장에서의 백자 지식 사례를 거론했고, 1800년 경신년 정조 국장에서 석제 지석을 쓴 것은 청화를 써서 번조하는 것을 금지한 후였을 뿐 아니라 천원, 즉 1789년의 경우로 세자의 묘소를 옮길 때 특히 석제 지석을 사용하도록 했던 정조의 유지를 따랐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러한 청화 금지 조치가 질박함을 보이기 위한 뜻에서 나온 것으로, 국장의 소용에까지 함께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금령이 이미 엄중하여 『국조상례보편』에 기재된 바를 들어 갑자기 옛 제도를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이유로 백자 지석을 갖추지 않는다면 정순왕후의 능이 영조의 능과 같은 언덕에 자리한다는 점에서 1776년 백자 지석을 갖춘 것과 차이가 생기므로 실행이 어렵다는 점 역시 보고했다. 이에 순조가 대신들에게 의견을 구하자, 애초에 청화를 써서 번조

65) 『貞純王后國葬都監儀軌』都監儀軌, “乙丑二月十四日 今十三日 總護使 禮曹堂上 觀象監 提調 入侍時 國葬都監堂上趙鎮寬所啓 頃以山陵誌石事 有所仰稟 而姑未蒙指一處分矣 陵誌之用燐磁 固是丙申巳例 而庚申之用烏石 非但在燐青設禁之後 抑亦遵遷園時 特用烏石之遺旨也 大抵禁青之令 出於示民以樸之意 未必竝及於國葬所用 然而禁令既嚴 有難以補編所載 遽從舊制 若又因此 而不用燐造 則同原之內 恐與丙申所用有異 事體莫重實難舉行矣 大臣方登 筵下詢處之 何如 上曰 大臣之意何如 左議政徐邁修曰 當初燐青之設禁 實出於先朝袞奢從儉之聖意 非竝與國葬時燐誌而禁之 況補編既有所載 丙申又既燐用 則到今同原之內 恐不必異同 且磁誌 雖千萬年之後 無剝蝕缺泐之患 今番新陵誌石 依丙申年燐青用之 實合事宜矣 上曰 依丙申年例爲之”: 해당 서술은 의궤에서는 2월 14일에 전날인 13일의 논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록에는 세부적인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을 논의 당일인 2월 13일자 기사로 수록했다. 『純祖實錄』純祖5年(1805) 2月 13日 기사 참고.

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는 정조가 사치를 없애고 검박을 따르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 국장에서 백자 지식을 번조하는 것까지 함께 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재차 거론되었고, 백자 지식이 『국조상례보편』에 적혀있을 뿐 아니라 1776년 영조의 국장에서도 실행되었으므로 같은 언덕 내 정순왕후의 능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논급도 반복되면서, 1776년 영조 국장의 사례를 따라 백자 지식을 제작하기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1805년 국장에서의 백자 지식 제작 결정은 이처럼 1800년 정조 국장에서 의 논점을 되짚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조대 청화백자의 금지 조치에 이전 보다 확연히 해제된 태도를 반영하여 국장용 백자 지식이 궁극적으로 동시기 관요의 생산 기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한다. 나아가, 해당 논의 중 백자 지식이 천만년 후에도 부서지거나 깨질 염려가 없다고 밝힌 것은 1673년 효종 영릉의 천릉에서 백자 지식의 강점으로 ‘천만 년에도 영구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과도 일치하여 재질 특성과 제작 당위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계승된 측면 또한 살펴볼 수 있다.

1800년 정조의 국장 이후 19세기에는 1805년 정순왕후의 국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장에서 석제 지식을 준비한 것이 파악되지만, 19세기 말에 이르면 백자 지식 또한 재등장한다. 1898년 편찬된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에서는 『국조상례보편』의 백자 지식 규정과 1892년 경인년 신정왕후 국장의 석제 지식 사례를 함께 검토하면서 결과적으로 백자 지식을 제작한 내용이 확인된다.⁶⁶⁾ 나아가, 1904년 편찬된 『순명비국장도감의궤』에서도 당시 황태자비에 대해 1897년 정유년의 명성황후 국장 기록에 따라 백자 지식을 제작하도록 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⁶⁷⁾ 그러나 1905년 편찬된 『효정왕후국장

66)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都廳儀軌, “丁酉三月初九日(……)同日 總護使臣趙秉世謹奏 謹稽喪禮補編 誌石以磁誌載錄 而庚寅以烏石入用矣 今番依此舉行何如 謹上奏 奉旨 依奏”; “丁酉七月初五日(……)同日 詔曰 山陵誌石 燐磁入用事 分付國葬都監”

67) 『純明妃國葬都監儀軌』都廳儀軌 “總護使臣李根命謹奏 謹稽喪禮補編 誌石以磁誌載錄 而庚寅以烏石入用 丁酉以磁誌入用矣 今番則何以爲之乎 敢奏 奉 上曰 燐磁入用”

도감의궤』에서는 효정왕후가 1904년 11월에 승하해 9월 승하한 순명비 국상에 이어 연달아 장례를 치렀음에도 직전 선행된 명성황후와 순명비의 백자 지석 사례를 따르지 않고 1878년 무인년 승하한 철인왕후의 사례대로 석제 지석을 제작한 것이 파악되므로,⁶⁸⁾ 19세기를 거치며 전례서와 선행 사례 중 지석 재질에 대한 참고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9세기 말과 그 이후까지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V. 맺음말

조선시대 국장에서 지석은 조선전기 석제 지석을 매안하는 규례가 정해진 이후,⁶⁹⁾ 천릉과 같은 합당한 절차가 아니면 다시 꺼낼 수 없고 함부로 수정할 수도 없다고 여겨지며 의례의 엄중함을 표상했다.⁷⁰⁾ 이러한 가운데, 1673년 효종의 영릉을 천릉하며 백자 지석을 채택한 것은 많지 않고 영구하다는 강점을 들어 석제에 대한 차선의 재질로 추가 검토되면서, 왕실 의례의 영역 안에서 백자의 가치가 재인식된 측면을 보여준다. 또한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그 존재가 부각되며 국홀에 백자 지석이 규범화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은 1673년 천릉에서의 제작이 조선왕실의 백자 사용 뿐 아니라 의례 문화

68) 『孝定王后國葬都監儀軌』都廳儀軌, “摠護使臣尹容善謹奏 謹稽喪禮補編 誌石以磁誌載錄 而各年亦有烏石入用之例矣 今番則何以爲之乎 敢奏 奉旨 戊寅年例爲之”

69) 『世宗實錄』五禮, 凶禮 治葬 “(……)以油灰暫塗誌石內面四邊 勿使侵近字畫 卽以蓋石相合 又塗油灰於兩石合縫之隙 以銅鐵繩束之 橫縮各一置於掘地之中(……)”; 『國朝五禮儀』卷7, 凶禮 治葬 “(……)以油灰暫塗誌石內面四邊 勿使侵近字畫 卽以蓋石相合 又塗油灰於兩石合縫之隙 以銅鐵繩束之 橫縮各一 置於掘地之中(……)”

70) 이 같은 인식은 일찍이 1450년 세종의 국상에서 지석의 수정에 관해 논의하며, 지석은 다시 열어볼 수 없으며 장례 날에 묻어야 하고 무덤 속 지석을 내어 글자를 고치는 것 또한 불가하다고 언술한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文宗實錄』文宗卽位年(1450) 5月 10日 기사 참고.

의 맥락에서도 전환적인 의미로 고찰되어야할 필요를 제기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1673년 천릉 과정을 기록한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를 중심으로 백자 지식의 제작에 관한 주요 내용을 간추려 그 의의를 탐구하고자 했다. 먼저, 제작 결정에 수반된 소관 및 서사관의 배정 논의를 통해서는 전반적인 의례 절차 안에서 실행 체계가 정립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중 서사관 선정의 기록은 1673년의 제작 과정을 실증하는 자료로 장서각 소장 청화백자 지식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근거도 제공해주었다. 다음으로 는 제작 개요와 소입 물품의 조달 내용을 분석해 재료의 수급부터 완성품의 운반 및 매안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실행의 윤곽을 확인했다. 특히 지식의 규격과 형식 및 백토와 청화 안료에 대한 서술에서는 조선시대 백자 지식의 발달과 관요의 제작 환경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새로운 기록도 발견되어 주목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이후 국장 및 예장에서 지식 제작 상황을 정리해 1673년 제작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한편, 이러한 국훈의 백자 지식이 동시기 관요 백자의 제작 방향 및 발달상과 상호 연관된 일면에 대해서도 추가 사례로 거듭 제시했다.

1673년 백자 지식의 제작 결정과 실행은 18세기 중반 영조대에 재조명되면서 백자 지식을 국장용으로 단독 채택 및 『국조상례보편』에 규례로 정립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써 국장 및 예장 의례에 공고히 수용되면서 18세기 후반~19세기에 걸쳐 석제 지식과의 비교검토 및 선택적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석제 지식만 고수되던 조선전기에 비해 재질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식에 대해 한층 유연해진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며, 1673년 천릉의 백자 지식 제작은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이끈 실험적 시도로 조선시대 국장용 지식의 새로운 전통을 형성한 기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國朝喪禮補編』
『國朝五禮儀』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文宗實錄』
『文孝世子禮葬都監儀軌』
『思悼世子禮葬都監儀軌』
『成宗實錄』
『世宗實錄』
『純明妃國葬都監儀軌』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英祖國葬都監儀軌』
『英祖實錄』
『仁元王后國葬都監儀軌』
『日省錄』
『莊獻世子永祐園遷奉都監儀軌』
『貞聖王后國葬都監儀軌』
『貞純王后國葬都監儀軌』
『正祖國葬都監儀軌』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孝定王后國葬都監儀軌』
『孝宗國葬都監儀軌』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

구혜인, 「朝鮮 後期 陽刻白磁 研究」, 『미술사학연구』263, 한국미술사학회, 2009,

- 김세진,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 研究」,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0
- 김세진,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의 變化와 特徵」, 『미술사학연구』 271:272, 한국 미술사학회, 2011
- 송인희, 「조선 17-18세기 가례(嘉禮)와 흉례(凶禮) 의례에 나타난 왕실용 백자 (白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6
- 오임숙, 「조선시대 誌石 연구」,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 오임숙, 「조선시대 磁器製 器物形 誌石 연구」, 『석당논총』63, 동아대학교 석당 학술원, 2015
- 장남원, 「<백자청화 이기하 지식>의 도자사적 의의」, 『이기하 묘지(李基夏 墓誌) 28년만의 귀향』,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22
- 강경숙, 『韓國陶磁史』, 예경, 2012
-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묘지명Ⅱ』, 2012
-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왕실의 비석과 지식 탐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의례, <http://kyujanggak.snu.ac.kr/center/main/main.jsp/>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사료DB, <https://db.history.go.kr/joseon/>

Abstract

CREATION OF WHITE PORCELAIN MEMORIAL TABLET
FOR THE 1673 RELOCATION OF KING HYOJONG'S
TOMB: ITS SIGNIFICANCE FOR A NEW TRADITION IN
JOSEON-ERA STATE FUNERALS

SONG INHEE (SONG, IN HEE)

This research aims to elucidate the significance of white porcelain memorial tablets produced during the 1673 relocation of King Hyojong's (1619-1659) royal tomb by integrating essential details from the associated royal protocol documentation called *Uigwe*. This collection of documents, titled "*Uigwe of the Office for the Relocation of King Hyojong's Yeongreung*," details the first creation of blue and white porcelain tablets for state funeral epitaphs in the Joseon Dynasty (1392-1910).

To highlight its importance, which has not been adequately recognized, the study examined how the production system of these white porcelain tablets fits into the overall state ritual framework, considering the gravity of state funerals, reserved exclusively for kings, queens, crown princes, and crown princesses, by analyzing documents concerning official appointments and production outlines, alongside additional relevant historical records. Furthermore, by gathering accounts from later *Uigwes* of state funerals alongside pertinent historical texts, the study uncovered the impact of the 1673 production on subsequent ceremonial traditions.

The production from 1673 was revisited in the mid-18th century, leading to white porcelain tablets becoming a new norm for state funeral epitaphs. Consequently, blue and white porcelain emerged as a legitimate option for memorial tablets in state funerals during the late 18th and 19th centuries, amid choices presented between conventional stone and recently embraced porcelain. This reflects a more flexible viewpoint on state funerals compared to the earlier custom, which exclusively employed stone carvings for epitaphs. Thus, the 1673 production holds significance as a trailblazing initiative that encouraged this shift in perspective,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rise of a new practice of employing white porcelain epitaphs for state funer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 Uigwe, Royal Protocol, State Ritual, Royal Kiln, Official Kiln, Epitaph, Ceramic Plaque, Blue and White Porcelain, White Porcelain in Underglaze Blue, Cobalt Blue

